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의식조사

정재준(연세대학교 교수)

이무춘(상명여자대학교 교수)

I. 서 론

우리나라의 쓰레기 발생량은 최근 수십년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1991년도 우리나라의 일반폐기를 발생량은 2.32kg/인/일로서 경제선진국들 보다도 많은 수준에 있다(환경처, 1992). 이에 정부에서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확대 및 감량화, 재활용 증진정책을 펴고 있으나 매립지 및 소각시설의 확충은 넘비현상으로 높은 벽에 부딪히고 있는 반면 쓰레기의 감량화 및 재활용 증진정책은 시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유명준, 1992) 아직까지 별다른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재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배출·수거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노력이 없이는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에 본 조사연구의 목적은 쓰레기 분리배출·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재활용 증진정책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지역 및 주민

주민들이 가정과 업소, 사무실에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어떻게 분리·배출하고 수집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3년 3월 8일부터 13일 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흥시, 김포군의 각 사례조사

지역의 주민, 업소, 사무실 종사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자는 개인주택과 공동주택, 후자는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 설문의 조사영역

설문의 조사영역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과 분리수거실태

- 분리수거 참여도
- 지역별 분리수거 참여도
- 발생원별 분리수거 참여도
-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이유
-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방식
- 조직을 통한 분리수거-재활용운동 참여정도
- 집단적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동기
- 재활용추진 조직, 부녀회의 분리수거-재활용 운동에 대한 평가
- 분류배출방식
- 분리수거함 크기의 적정성

(2) 재생제품의 이용실태

- 재생제품의 이용도
- 재생제품의 구입경로
- 재생제품에 대한 불만 사항

(3) 일회용품에 대한 태도

- 일회용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태도
- 일회용품의 사용에 대한 반응
- 일회용품 발생억제를 위한 방안

3. 조사방법

설문조사 방법은 사례조사 지역의 주민을 무작위로 20~30명씩 추출하여 직접방문을 통해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설문조사의 표본추출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들의 조사대상지역은 비교적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 곳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재활

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연구되어 다른 지역에 전파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III. 조사결과 분석

1. 응답자 현황분석

(1) 지역별, 발생원별 응답자 현황

〈표 1〉 조사지역별 응답자 현황

	총 계	일반주택단지	아파트 단지	상 가	사무실
총 계	220	80	50	40	50
서울시 도봉구	110	30	30	20	30
경기도 시흥시	90	30	20	20	20
경기도 김포군	20	20			

〈표 1〉에 조사지역별 응답자 현황을 보였다. 서울시 도봉구의 경우 일반주택지역은 번2동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아파트단지는 삼익아파트단지의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상가는 쌍문동의 세반쇼핑의 입주 업소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무실은 수유동의 가든타워 입주 업소의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일반주택지역은 신천동의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아파트단지는 영남1차 아파트단지의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상가는 삼미상가의 입주 업소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경기도 김포군의 경우 농촌지역의 자연부락인 고천면 천호리의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응답자의 지역별·성별분포

총 응답자 220명중 남자는 70명 여자는 150명으로 여자가 더 많았다. 주택지의 경우 응답자 중 주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자들이 더 많게 되었다. 〈표 2〉에 응답자의 지역별·성별 분포도를 보였다.

〈표 2〉 응답자의 지역별·성별 분포

	총 계	도봉구	시흥시	김포군
총 계	220	110	90	20
남	70	36	30	4
여	150	74	60	16

(3) 응답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표 3〉에 응답자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 220명 중 30대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40명, 20대가 25명, 50대가 23명, 60대 이상이 17명이었다.

〈표 3〉 성별·연령별 분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	70	2	34	21	9	4
여	150	23	81	19	14	13
총계	220	25	115	40	23	17

2. 응답결과 분석

(1) 배출과 분리수거 실태

① 분리수거 참여도

〈표 4〉에 의하면 응답자의 81.4%가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8.6%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분리수거에 대한 참여도

	한다	안한다	합계
응답자수	177	43	220
비율(%)	81.4	18.6	100

그러나 이것은 분리수거를 하는것이 단순히 빈병이나 캔만을 따로 모아두는 것도 분리수거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므로 실제의 비율은 이보다 내려갈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순천시에서 조사된 것을 보면 주민중에 상당한 %가 빈병만을 분리하는 것도 분리수거로 보고 있었다(순천 경실련, 1993).

② 지역별 분리수거 참여도

〈표 5〉는 지역별 분리수거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분리수거 참여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봉구가 가장 높고 시흥시, 김포군의 순이다. 농촌지역인 김포군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는 사람이 응답자의 60%를 차지해 부리수거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남자 응답자 70명중 71.4%가 분리수거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응답자 150명중 86%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고 응답해 남자보다는 여자의 분리수거 참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 지역별 분리수거 참여도

		한 다	안한다	총 계
도봉구	응답자수	95	15	110
	비율(%)	86.4	13.6	100
시흥시	응답자수	70	20	90
	비율(%)	77.8	22.2	100
김포군	응답자수	12	8	20
	비율(%)	60.0	40.0	100

③ 발생원별 분리수거 참여도

〈표 6〉은 발생원별 분리수거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쓰레기의 발생원별 분리수거 참여도를 살펴보면 아파트단지는 응답자의 100%가 분리수거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상가는 분리수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65%에 지나지 않는다. 인터뷰 조사결과 상가나 사무실지역의 분리수거는 주택지역의 분리수거와 달리 종이, 병 등 한정된 품목에 대해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 발생원별 분리수거 참여도

		한 다	안한다	총 계
아 파 트	응답자수	50	0	50
	비율(%)	100	0	100
단 지	응답자수	66	14	80
	비율(%)	82.5	17.5	100
지 역	응답자수	26	14	40
	비율(%)	65.0	35.0	100
상 가	응답자수	35	15	50
	비율(%)	70.0	30.0	100
사 무 실	응답자수	35	15	50
	비율(%)	70.0	30.0	100

④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이유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표 7〉과 같이 필요성은 느끼나 귀찮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도 14.6%였다.

〈표 7〉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이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필요성을 느끼나 귀찮음	기타	합계
응답자수	6	17	18	41
	14.6	41.5	43.9	100

⑤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방식

〈표 8〉을 보면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방식은 재활용추진조직과 부녀회 등 조직을 통해 하는 경우가 60.8%로 높으나, 개인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경우도 37.9%나 되었다.

〈표 8〉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방식

	조직을 통해	개인적으로	기타	합계
응답자수	98	61	3	161
	60.9	37.9	1.9	100

⑥ 조직을 통한 분리수거-재활용운동 참여정도

〈표 9〉는 재활용추진조직이나 부녀회 등의 조직을 통한 분리수거-재활용운동에 대한 참여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최대한 참여한다는 사람이 76.2%, 가끔 참여한다는 사람이 14.3%로 대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인터뷰 조사 결과 분리수거 과정에는 참여율이 매우 높으나 판매하기 위해 재분류하는 활동에는 대략 20~30% 정도가 참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조직을 통한 분리수거-재활용운동 참여정도

	참여않는다	가끔 참여	최대한 참여	합계
응답자수	7	15	80	105
비율(%)	6.7	14.3	76.2	100

⑦ 집단적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동기

〈표 10〉 집단적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동기

	남들이 하니까	주위의 권유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기타	합계
응답자수	3	8	151	5	162
비율(%)	1.9	4.9	93.2	3.1	100

⑧ 재활용추진조직, 부녀회의 분리수거-재활용운동에 대한 평가

〈표 11〉에 의하면 재활용추진조직이나 부녀회 등의 조직에서 하는 분리수거-재활용운동에 대해 51.0%가 잘한다고 평가하고 있고, 10.8%가 제대

〈표 10〉은 재활용추진조직이나 부녀회 등의 조직에서 하는 집단적 분리수거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162명 중 93.2%가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위해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남들이 하니까, 주위의 권유에 의해 참여하고 있다는 사람은 비교적 적어 분리수거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지가 비교적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재활용추진조직, 부녀회의 분리수거-재활용운동에 대한 평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저 그렇다	잘한다	기타	합계
응답자수	11	39	52	—	102
비율(%)	10.8	38.2	51.0	—	100

⑨ 분류배출방식

〈표 12〉는 가정(업소)내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168명 중 재활용 쓰레기를 두 종류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람 즉 쓰레기를 3종 이상으로 분류하는 사람이 54.2%로 가장 많았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의 두 종류로 분류하는 사람이 44.1%였다. 구분하지 않는 사람은 1.8%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두 종류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가정(업소)내에서 쓰레기를 분류하는 방식

	구분하지 않는다	두종류(일반, 재활용)	3종류 이상	합계
응답자수	3	74	91	168
비율(%)	1.8	44.1	54.2	100

로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저 그렇다라는 사람이 38.2% 이므로 재활용추진조직이나 부녀회 등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반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에 의하면 가정(업소)에 분리수거함을 두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분리수거함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9.4%,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37.1%였다. 기타에 응답한 3.5%도 집안내에서 여러 형태의 용기(비닐, 종이박스 등)로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가정(업소)내의 분리수거함 설치 유무

	있다	없다	기타	합계
응답자수	101	63	6	170
비율(%)	59.4	37.1	3.5	100

〈표 14〉에 의하면 가정(업소)에서 부터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169명 중 91.7%가 바람직하다고 대답해 가정내에서 부터 재활용쓰레기의 분류를 유

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14〉 가정(업소)내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것에 대한 태도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다	합계
응답자수	14	155	169
비율(%)	8.3	91.7	100

〈표 15〉에 의하면 종이류, 병류, 철류, 비철류,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쓰레기를 5종으로 분류하는 현재의 방식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162명 중 82.7%가 좋다고 대답했고, 나쁘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4.9%에 불과하다. 상관없다는 사람은 12.4%로 현재의 분류방식에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15〉 현행 5종 분류방식에 대한 태도

	나쁘다	상관없다	좋다	합계
응답자수	8	20	134	162
비율(%)	4.9	12.4	82.7	100

⑩ 분리수거함 크기의 적정성

〈표 16〉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 크기

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아파트나 주택, 상가 등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의 크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7%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작다는 사람도 38.6%에 달했다. 인터뷰 조사 결과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은 대부분 작다는 의견이었다.

〈표 16〉 분리수거함 크기의 적정성

	작다	상관없다	적당하다	합계
응답자수	56	30	59	145
비율(%)	38.6	20.7	40.7	100

⑪ 재활용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주민의 태도

〈표 17〉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재활용품의 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 중 41.9%가 재활용품의 판매가격을 현재의 가격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적당하다는 사람은 16.2%이다. 더 낮춰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9%에 불과하나, 가격을 잘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들도 39%에 달해 재활용품의 가격이 분리수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7〉 재활용품 판매가격의 적정성 여부

	더 낮춰야 함	적당	더 올려야 함	가격을 잘 모름	합계
응답자수	4	22	57	53	136
비율(%)	2.9	16.2	41.9	39.0	100

(2) 재생용품의 이용실태

① 재생용품의 이용도

〈표 18〉은 재생용품의 이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재생화장지, 재생노트 등 재생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46.8%이고,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이 53.2%를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표 18〉 재생제품의 이용도

	없다	있다	합계
응답자수	99	87	186
비율(%)	53.2	46.8	100

〈표 19〉는 재생제품을 사용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재생용품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환경보호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55.8%로 가장 많았고, 재생제품인 줄 모르고 우연히 구입한 경우가 16.3%, 남들의 권유에 의해 구입한 경우가 4.7%, 기타가 23.3%를 차지 했다.

〈표 19〉 재생제품을 사용한 이유

	남들이 권유해서	우연히 구입	환경보호 를 위해	기타	합계
응답자수	4	14	48	20	86
비율(%)	4.7	16.3	55.8	23.3	100

② 재생제품의 구입

재생제품의 구입 경로를 나타내고 있는 〈표 20〉

에 의하면 응답자 85명 중 42.4%가 재활용주진위원회나 부녀회에서 받았고, 가게에서 구입한 사람은 24.7%, 우유팩과 교환한 경우가 11.8%이다. 재생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대체로 가게등을 통한 적극적인 구매보다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으로 주민에게 환원되는 재생화장지 등을 사용하는 소극적인 이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0〉 재생제품의 구입 경로

	가게에 서 구입	우유팩 등 과 교환	조직에 서 줌	기타	합계
응답자수	21	10	36	18	85
비율(%)	24.7	11.8	42.4	21.2	100

③ 재생제품에 대한 불만 사항

〈표 21〉은 재생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재생화장지, 재생노트 등을 사용한 뒤 제품에 대한 평가는 좋았다는 사람이 69.9%, 좋지 않았다는 사람은 30.1%로 재생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표 21〉 재생제품에 대한 만족도

	좋지 않았다	좋았다	합계
응답자수	22	51	73
비율(%)	30.1	69.9	100

〈표 22〉는 재생제품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재생제품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종류가 너무 적다는 것으로 응답자의 31.8%를 차지하고 있다. 품질이 좋지 못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3.5%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값이 비싸다는 경우는 8.2%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표 22〉 재생제품에 대한 불만

	종류가 적다	품질이 낮다	값이 비싸다	불만 없다	기타	합계
응답자수	27	20	7	20	11	85
비율(%)	31.8	23.5	8.2	23.5	12.9	100

(3) 일회용품에 대한 태도

① 일회용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태도

〈표 23〉 일회용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태도

	별영향 이없다	잘 모르겠다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합계
응답자수	4	20	189	213
비율(%)	0.5	9.4	88.7	100

〈표 23〉에 의하면 일회용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88.7%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하고 있고, 별 영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0.5%에 불과해 일회용품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응답자 67명 중 82.1%, 여자는 91.8%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일회용품의 사용에 대한 반응

〈표 24〉 여관, 음식점, 목욕탕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태도

		바람직 하지 않다	상관없다	바람직 하다	총계
여관	응답자수	119	25	36	180
	비율(%)	66.1	13.9	20.0	100
음식점	응답자수	154	9	21	184
	비율(%)	83.7	4.9	11.4	100
목욕탕	응답자수	110	28	30	168
	비율(%)	65.5	16.7	17.9	100

〈표 24〉는 여관, 음식점, 목욕탕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여관에서 일회용 면도기, 일회용 칫솔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가 66.1%, 상관없다라는 응답이 13.9%, 바람직하다라는 응답은 20%로 대부분이 일회용품의 사용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응답자 60명 중 56.7%만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있고, 여자는 120명의 응답자 중 70.9%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해 남자보다는 여자가 일회용품의 사용에 대해 부정적이다.

음식점에서 나무젓가락, 일회용 용기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184명의 응답자중 83.7%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바람직하다라고 응답

한 사람은 11.4%, 상관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4.9%에 불과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응답자의 68명 중 73.5%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있고, 여자는 116명의 응답자 중 89.7%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목욕탕에서 일회용 면도기, 일회용 칫솔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168명의 응답자 중 65.5%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7.9%, 상관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6.7%에 불과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응답자 68명 중 52.9%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있고, 여자는 100명의 응답자 중 74.0%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관, 음식점, 목욕탕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든지,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부정적이다. 남자들이 여관, 목욕탕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일회용품이 상대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일회용품이 제공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③ 일회용품 발생 억제를 위한 방안

(표 25) 일회용품 발생 억제를 위한 방안

	값을 올려야	소비자의 사용자체	정부규제	기타	합계
응답자수	6	154	49	4	213
비율(%)	2.8	72.3	23.0	1.9	100

(표 25)에 의하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총 응답자의 72.3%가 소비자가 스스로 쓰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3.0%였다. 값을 올려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8%에 지나지 않는다.

(표 26)에 의하면 일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정부의 법적, 행정적인 규제강화에 대해서 찬성이 77.4%, 반대가 14.4%이다. 일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소비자가 스스로 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태도

	반대	모르겠다	찬성	합계
응답자수	30	17	161	208
비율(%)	14.4	8.2	77.4	100

④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분석

(표 27)에 주민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요약하였다. 주민들 스스로는 쓰레기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이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법적, 행정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주택 지역, 상가, 사무실 등은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개진된 반면, 아파트 지역은 현행 분리수거함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분리수거함의 문제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종이류, 플라스틱류의 분리수거함 크기가 작다는 점이며, 일부는 분리수거함이 철로 제작되어 병류 등이 깨어지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도봉구의 삼의아파트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함께 섞어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차량, 인력 등 분리수거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분리수거제는 주민의 불신을 가중시켜 분리수거를 더욱 더 어렵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분리수거 품목을 정하고 이 품목을 세분해서 분리배출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 함께 모아도 될 것인지를 정해 홍보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7) 의견 및 건의사항

	도봉구	시흥시	김포군
아파트	• 분리수거함이 철로 제작되어 병등이 깨짐	• 종이, 플라스틱 분류함의 크기 협	
	• 재활용품 판매대 금을 분리수거함에 배분	• 건전지 분리수거 여자에게 배분	
		• 우유팩을 화장지로 교환하는 장소	
		위한 지원과 행정 규제 강화	

	도봉구	시흥시	김포군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에서 용기 규격통일하고 재생 가능용기 사용 • 주민에 대한 홍보강화 • 유치원부터 분리수거-재활용에 대한 교육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수거한 재활용쓰레기를 한꺼번에 싣고 가는 문제 	
일반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이 낮으므로 홍보와 정부규제 강화 •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을 바로바로 수거해가도록 • 소비자 스스로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도록 홍보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수거함 설치 (아파트 단지처럼) • 재활용품 회수빈 구성 • 일회용품은 소비자 스스로 사용자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수거함설치 도를 더 많이 해야 함 •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섞지 말아야 • 냉장고등 대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상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수거함 설치 • 분리수거해야 할 품목과 수거방법 • 상인들의 의식전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내 분리수거함 설치 • 분리수거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 개인업소의 자발적 참여 협동 • 재활용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공청회등을 통한 의견수렴 •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강화 	
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된 재활용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함 • 홍보강화 	

IV. 요약 및 결론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민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으며, 재활용추진조직과 부녀회 등 조직을 통해 재활용가능쓰레기의 분리수거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위해 집단적인 분리수거에 참여하고 있다. 집단회수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경우 상당히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재활용추진조직을 비롯한 부녀회의 분리수거-재활용운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조직의 활동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올려야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수거를 강화하려는 방안은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재활용추진조직이나 부녀회 등에서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보상의 일환으로 나누어 주는 재생화장지등 재생제품을 사용하였으나, 재생제품을 사용해본 적이 있는 주민들의 대부분은 재생제품에 대해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는 편이다.

재생제품에 대한 불만사항은 종류가 적다, 품질이 좋지 못하다, 값이 너무 비싸다는 순으로 나타나 재생제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생제품의 종류를 다양화해야 할 뿐 아니라,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일회용품에는 종이기저귀, 종이컵, 알루미늄 접시, 스티로폼 용기, 나무젓가락, 술가락, 치솔, 면도기, 샴푸, 물휴지등이 있다.

일회용품은 종이기저귀등과 같이 사용이 간편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에서와 같이 인건비의 상승, 업소간의 서비스 경쟁등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이 제공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번 조사에서 주민들의 대부분은 음식점, 여관, 목욕탕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품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8.7%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으나 음식점, 여관, 목욕

탕에서 일 용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이보다 적은 71.8%로 나타났다. 일회용품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지만 일회용품이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실생활에서 겪어야 할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다는 사람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소비자 스스로 쓰지 않아야 한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값을 올여야 한다의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에 대한 홍보, 계몽과 더불어 정부의 법적,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 일회용품의 발생억제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정은영, 1992, 환경오염에 대한 중학생의 태도 평가도구 개발, 석사논문 서울대 대학원 과학교육과

- (2) 순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3, 순천시쓰레기 분리수거의 현황 및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
- (3) 유행준, 1992, 지역개발과 환경에 관한 주민의식의 조사연구, 지역개발연구 제2집 pp.27~56, 연세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논문집
- (4) 환경처, 1992, 1992년판 환경백서
- (5) Boerg, Mathiesen, Voltenauer-Lagemann, 1984, Motivation zur umweltbewusstem Verhalten. Forschungsbericht des Sozialdata Institut fuer Verkehrs- und Infrastrukturforschung, Muenchen.
- (6) Fietkau, Kessel, Tischler, 1981, Umweltlernen. Veraenderungsmoeglichkeiten des Umweltbewusstseins-Modell, Erfahrungen
- (7) Horbach, Jens, Umweltbewusstsein in Deutschland: ein Ost-West-Vergleich, Zeitschrift für Angewandte Umweltforschung, 6(1993) No 1, pp. 44~53

ABSTRACT

Cititude to the source separation and recycling of domestic waste.

Jae-Chun Chung (Yunsei University)

Moo-Choon Lee (Sangmyung Women's University)

The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present situation of sourceseparation, recycling of domestic waste and citizen's attitude to them.

The selected study area were Dobonggu in Seoul, Siheung city, Kimpogun.

The result showed that most of the citizen in the selected area is performing source separation effort by group activity basis. However, there is no strong economic incentives for continuous source separation effect since the price of the recyclables is relatively low. For the recycled products, most people appears to think that the diversification of the product should be necessary for a bitter market competativeness. For the disporable product, most citizen feels that free that supply in the public facilities should be prohibited.